

클래식 피아니스트 김지윤씨가 시와 음악이 만났다는 뜻의 ‘시음 /si-úm/’이라는 공연 프로젝트를 이번 6월 7일 카네기홀 와일홀에서 연다. ‘시음’ 프로젝트는 미국 내 유명 시인들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의 대표 시인인 나태주씨와도 공동 작업을 했다. 시음이라는 한국적인 타이틀과 커버에 등장한 한복과 대비되는 뒷 뉴욕 거리의 배경으로 한국과 미국이 만난 하이브리드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시와 무대에서의 진솔한 대화들이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과 어우러져, 그만의 클래식 음악회의 딱딱한 틀의 고정관념을 깨려는 대담한 시도로 관객과 교감한다. 이 공연은 이번 시즌 미국 전역 30개 도시 투어를 마쳤으며, 이번 6월부터는 그의 한국 소속사인 톨뮤직을 통해서 한국 연주 투어를 앞두고 있다. 이번 카네기홀 연주는 2016년 데뷔 공연이후 두번째로 갖는 연주이다. 그는 특히 미국에서 특히 전형적인 클래식 음악 팬들인 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로 부터도 공감을 받으며 클래식계에 또 하나의 획을 긋고 있다.

그녀는 2021년 <Whenever You're Ready>라는 자기계발서를 미국에서 출간했고, 이러한 그녀의 대담한 음악가로서의 활동은 그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주목하게 했고 그 결과 지난 7월 한국 주요 출판사인 다산북스에서 <백만 번의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이 책은 자기계발 분야 3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녀는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음악적 경험에서 얻은 지혜와 통찰, 자신의 삶을 공유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실패할 때마다 희망을 꿈꾸었다’고 말하는 그는 많은 독자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하며 작가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날 그는 카네기홀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의 챔버 음악 협회, 혹은 시카고의 스트라드 협회에서 주최하는 등의 미국 전역의 저명한 홀과 단체가 주관하는 연주들을 통해 활발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관객과 더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의 클래식 음악과 연결되는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클래식 음악의 선두주자로 그 클래식 음악의 마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그녀의 팟캐스트인 Journey Through Classical Piano는 그가 직접 클래식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같이 감상하면서 그만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세계 전 팬들과 나누고 있다

그는 예술 운동가이자, 교육자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이자, 강연가이자, 유튜버이자, 작가이자, 전문 피아니스트이다. 현재 미국 서부 샌디에고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는 사람들이 더 클래식 음악을 더 알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음악을 나누고 있다. 김지윤

피아니스트는 자신만의 색깔로 관객과의 소통을 끊이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무 같은



Presented by
NAMUS CLASSICS

시음
/SI-UM/

CARNEGIE HALL
Weill Recital Hall
June 7, 2023
Wednesday at 8 p.m.

TICKETS: www.carnegiehall.org
CarnegieCharge 212-247-7800
Box Office at 57th and Seventh

JEEYOON KIM

예술가이다.